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세상에서 인간됨이 가장 소중하다

현대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어물어물 하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모르는 세상이다. 그래서 귀신이나 호랑이에게 잡혀가지 않으려는 듯, 현대인들은 모두가 긴장하고 두리번거리고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살아간다.

민주화, 산업화, 도시화, 개인화, 정보화, 인공지능(AI) 등 현대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들은 많다. 요사이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부른다. 인간과 로봇, 인간과 기계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존의 시대이다. 과학기술이 인간의 자리를 차지하고 인간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는 시대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 다가왔다.

지금 격변과 격동의 시대를 헤쳐가고 있는 한국사회는 혼돈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정치, 경제, 군사 등 국력이 10위권에 들어가는 놀라운 선진강국이 되었다. 통일된 조국 한반도는 더

욱 동방의 등불을 넘어서 세계의 등불로 찬란히 빛날 것이다.

이제 나는 젊었을 때는 잘 몰랐던 인간에 대한 관찰과 평가의 기준을 갖게 되었다. 인간에 대한 관찰과 평가의 기준을 다른 말로 하면 인생관, 가치관, 인생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기도 당해 보고, 무시와 모욕도 당해 보고, 피해자로 괴로운 투쟁도 해보고, 소외되어서 변두리르 떠들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흠수저로 태어나서 힘없는 농부들의 서러움도 뼈에 새기고, 사회적 약자들의 시린 가슴과 눈물에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등등 평범하진 않은 굴곡진 삶을 살아왔다.

대학 재학 중에 폐결핵 말기(3기)에 걸려서 사신을 넘었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간신히 목숨만 살아 남아서 자동차는 폐차했으며, 경기도 가평군 석촌산에서 조난을 당해서 반세 지체온과 공포감을 이겨내고 살아 돌아왔다. 이제 모든 것을 포용하되

빛과 그늘,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를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칼럼의 제목을 '현대사회에서 군자와 소인은 누구인가'로 정했다가 지우고 부드럽게 '세상에서 인간됨이 가장 중요하다'로 고쳤다. '세상에서 인간됨이 가장 중요하다'는 평생을 통해서 도달한 결론이다. 내가 터득한 인생의 잣대이다. 참다행이고 참좋은 가치관, 인생관이라고 생각한다.

남자와 여자, 나이, 미모, 직업, 직책, 능력, 정당, 종교, 학력, 지역, 혈통, 국적, 인종 등 모든 것이 갖춰져야, 모든 것들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됨', '인간성'이다. 어떤 사람이 위에 열거한 어떤 면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거짓된 사람, 편협한 사람, 인색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나쁜 사람, 해로운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유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소인,

소인배라고 부른다. 인류의 스승의 한 분인 공자는 2천5백년 전에 그런 소인배들과 대비되는 바람직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군자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말로 살고 말로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공자의 많은 교훈 중에서 말에 관한 가르침을 한 두가지 소개할까 한다.

군자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실행하고, 그 후 말해야 한다.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 군자는 의에 임하게 깨닫고, 소인은 이익에 의해 깨닫는다. 군자는 배부른 것을 구하지 않으며 편안한 말을 신중하여야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바로 나갈 수 있다.

서울 강남과 전국 급사라기 땅에 수십 억 짜리 고급 아파트를 몇 채씩 소유하고,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가장 선하고 정의로운 말을 하고 뒤로는 온갖 불법과 탈법과 비리를 저지르는 위선과 거짓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인들과 상류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실망과 허탈감, 분노와 비애를 주체할 길이 없다. 누구 해도 그놈이 그놈이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래도 마음 다잡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잘 선택해야 한다. 그래도 '인간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이 떠오른다.

社說

주택조합 사업 제도개선 필요

지역 주택조합 사업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대신 리모델링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아파트 하자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우선 개정안은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 조건을 강화했다. 지금은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이와 함께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도 확보해야 한다.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이 장기화해도 조합 탈퇴가 쉽지 않아 피해자가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퇴로를 열어 준 것이다.

조합은 사업개요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조합원의 자격기준, 조합원 탈퇴 및 환급 등 중요사항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광고 등을 할 때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과장광고는 금지된다.

과장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리하고 있지만 이를 주택법에도 명시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75% 이상의 리모델링 동의를 받은 경우 이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제도개선이 지체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이 장기화해도 조합 탈퇴가 쉽지 않아 피해자가 생기는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7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평범한 삶이 주는 행복

우리는 살면서 평범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면서 살아간다. 아무리 좋은 집 또는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수 없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내편에서 서서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이다.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망 끝에 서보면 절실히 느낄 수 있다. 나는 매일 행복하고 감사하다. 왜냐하면 사랑하

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 중에 병원에 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행복했던 날들이 기억에 남을까! 생각하면 행복은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우리 곁에서 찾아야 한다.

나에게 항상 기쁨을 주는 사랑받는 가족이 있기에 행복은 더욱 더 넘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건강한 모두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함께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우리는 깨

달아야 하며 그리고 매일 평범한 생활이지만 평범한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기사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사납금 채우기가 어려워 점심머니 돌이 타서 하는 이야기가 아파트 가격이 몇 십억을 넘는 집인데도 햇별이 잘 안 들어 짜증이 난다고 푸념을 늘어놓더라.

우리는 흔히 '행복한 고민'이라는 말을 가끔 사용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한 쪽은 분명 행복한 고민들이다. 평소에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높은 산에 올라 산소 결핍증을 겪는다면 도시의 매연 속에서 숨쉬기 어려운 상황을 겪어봐야 알듯이 우리는 대체로 일상의 평범함에서 행복을 느끼는 훈련이 부족하다. 자동차를 매일 타는데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없으면 그때야 비로소 불편함을 느끼고 존재 가치를 인식한다. 우리는 주위를 한 번 둘러보고 평소엔 무시하게 보아왔던 존재들의 가치를 재인식하면서 행복을 배로 즐기는 훈련을 하여보자.

국종균 / 광주북부소방서 현장담당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